

主内平安? 코로나 19 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덧 또 두 달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두 달 동안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나누고 또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할 일도 있어서 다시 저의 이야기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제가 한 일 중에서 의미 있는 한 가지 성취가 있다면 앞으로 태국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가르칠 강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학사 일정으로는 오는 7 월 15 일부터 여름 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국에 들어가는 안전한 비행기편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 태국에서 적용 가능한 건강 보험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예치해 놓아야 입국할 수 있다든지 하는 제한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제한이 풀려서 제가 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일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5 월 말에서 6 월 중순까지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큰 아들 집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언제 또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큰 마음을 먹고 다녀왔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비행기로 다녀올 수는 없었고, 우리 3 인 가족이 자동차로 편도 14 시간의 거리를 운전하여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욱 안전한 곳이었기에 좋은 가족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로서는 5 년만에 우리 손주들을 다시 볼 수 기뻐했습니다. 어찌다 보니 우리 가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둘째는 한국에 정착을 했고 우리 막내 아들은 이번 코로나 19 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미주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어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위하여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추진하게 될 몇 가지 사역에 대하여 나누고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중 한 사역은 태국 동북부 지방에서 태국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한 교육기관에서 성경 과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그분께서 오래 전부터 저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역은 방콕에 오래 전에 세워진 모임이지만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2 년 전부터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 하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난 3 월부터 사역이 시작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그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국에 입국하게 되면 어찌하든지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의 사역은 가을 학기 중에 태국 남부 지방에서 성경 세미나 하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 사역에는 제 아내도 동참하게 됩니다. 오래 전에 우리가 세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역들을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에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의 사역 현황은 이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사역이 많이 어렵게 되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손이 동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태국 사역과 함께 중국 사역의 문도 조만간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믿음의 탄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처럼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딤후 2:9)